

# T. S. Eliot의 시문학과 종교

김 영 호\* · 박 정 환\*\*

## 목 차

- I. 서론
  - 1. T. S. Eliot의 문학과 종교
  - 2. 구원의 주제
- II. 본론
  - 1. 힌두교
  - 2. 불교
  - 3. 기독교
- III. 결론
  - 구원의 주제

## I 서론

문학의 기원은 본래 종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고대 서사시와 같은 문학속의 종교의식은 종교가 문학을 형상화하는 데에서 그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문학이 취급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현실성과 종교적 시각이 담고있는 이상으로의 초월성이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 하더라도 두 시각이 상호 보완될 때 문학적 형식과 내용은 종교의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통제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종교가 문학에 심오한 사상과 이상을 부여한다면 문학은 종교를 더욱 고양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Eliot의 문학과 종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T. S. Eliot는 20세기 문명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성의 몰락(Dehumanity)을 주시하면서 시대적 혼돈을 인식했다. 시대적 혼돈속에서의 삶

---

\* 人文大 英語英文學科 教授 \*\* 崇實大學校 英文科 博士過程

은 시인에게 인간실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그 해답을 추구하도록 유인한다. 만약 Eliot가 인간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그는 실존주의에 몰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과 사회의 갈등사이에 빚어지는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종교와 문학에 몰두했다. 인간과 사회 사이의 공백은 타락, 소외, 의사소통의 단절, 생중사이며 지식의 한계를 의미하는 회의주의를 반영한다. 비록 문학과 종교가 각각의 독단을 경계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Eliot의 문학과 종교의 공통점은 교리에만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고 예술에만 집착하는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삶 그 자체를 다루는 점이다.<sup>1)</sup> 따라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Eliot의 문학과 종교의 지향점이다.

실재 세계에 대한 진리와 질서 의식을 탐구하는 철학자, 비평가 그리고 시인으로서 그는 근대역사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철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현상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 그것과 현상세계와의 분열된 관계 그리고 통합된 관계로의 지향을 시도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형이상학적 철학 대신에 종교와 문학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형이상학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현상세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에게 허구적이다. Eliot가 추구하는 세계는 현상세계와 개인이 통합된 실재 세계이므로 그는 결코 현상세계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전혀 초월적인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의 종교적 고뇌는 종교 자체의 색채 때문에 다분히 초월적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특성을 함유한 Eliot의 시문학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이다. 그는 "A Dialogue on Dramatic Poetry" (1928)에서 문학과 종교의 상보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iterature can be no substitution for religion, not merely because we need religion, but because we need literature as well as religion.<sup>2)</sup>

1) 김영호의 7인, (T. S. Eliot의 *Four Quartets*연구) 『문학과 종교의 만남』 pp. 109-111.

2) T. S. Eliot, *Selected Essays* (London : Faber & Faber, 1932) p. 48. 이후 SE로 약함.

문학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주장했던 Matthew Arnold의 시각까지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Eliot는 문학과 종교의 역할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정치적인 한계, 즉 실정법의 한계, 다시말해서 불결한 사회를 정화할 수 없는 정치적 한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된다. 자연법은 절대적인 신의 이성애 따라 천륜에 근거하는 반면에 실정법은 인간 본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대칭적 의사표시의 합치이다. 전자는 신의 이성애 근거하기 때문에 단절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인 반면 후자는 “악법도 법”이라는 현상자체의 의미를 수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따라서 Eliot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열정은 “편견과 환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붕괴”(social disintegration)<sup>3)</sup>를 조장한다. 법의 한계는 편견에 사로잡힌 한정된 시간의 역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표면적인 현상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Eliot가 특히 경제론에 입각한 인간 중심의 Marxism을 세속주의(secularism)라고 정의(SP 43)한 바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처럼, 그는 인간 중심의 표면적인 현상의 편견과 무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치적 해결보다도 종교에 몰두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원죄를 다스림으로써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When he states in 1935 that the only possibility of control and balance is a religious control and balance; that the only hopeful course for a society which would thrive and continue its creative activity in the arts of civilization is to become Christian ... (Tamplin 49-50)

1935년에 그가 언급한 사회를 위한 종교적 균형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그리고 영과 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 사상의 성육신(Incarnation)인 신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의 통합을 의미한다. 성육신의 개념은 인간적인 육체에 신성이 결합된 신(God)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즉 천륜에 의한

3) T. S. Eliot, *Selected Prose*, ed. J. Hayward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53), p. 230. 이후 SP로 약함.

인간관계, 부자관계, 형제, 그리고 사제관계와 같은 존경과 권위에 대한 조건없는 인간적인 동시에 절대적인 관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종교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와 개인과의 관련에 대한 비극적 삶의 경험적 신비성으로까지 확장한다. 그는 도구적 이성의 표출인 기계적인 문명을 비판하면서 감각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무감각한 마비 현상을 깨우기 위하여 원시적이고 속물적인 도시의 신화적 존재를 동물적 이미지로 묘사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감각적으로 유도하여 육체적인 안락을 건전한 상태로 전환하려는 Eliot의 문학적·종교적 의도이다. 이와 같이 Eliot의 종교적인 관념과 현실적인 경험은 현대의 불모성을 조장한 인간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총체적 경험, 즉 한정된 시간의 굴레를 풀어채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 관념적인 동시에 경험적, 그리고 추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다. A. Libby는 Eliot의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경향을 Emerson과 Whitman의 초월주의와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We call Emerson's and Whitman's (immanent) belief that holy spirit resides within matter Transcendentalism. So a transcendent religion like christianity - that is, one that worships a primary deity above and independent of the universe - celebrates in its central ritual the miraculous coming of that deity into matter, into man, into immanence. Eliot's orthodoxy does offer a perfect solution to the mystical tension between immanence and transcendence, Christ's Incarnation.(22)

Eliot에게 시문학은 지상 세계와 분리된 듯한 신적 존재인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된 듯한 신성과 같은 영원한 것 (what is permanent, not what is ephemeral)을 추구하는 것(SP 92)이다. 그는 영원을 추구하기 위하여 Emerson과 Whitman의 일원론<sup>4)</sup>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

여 종교적인 의식(its central ritual)을 통해 양자를 결합하는 Christ's Incarnation을 강조한다. 열정적인 개인의 정서(emotion)를 강조하는 Whitman의 낙천적인 경향과는 달리, Eliot의 시와 종교는 “정서로부터의 도피”(impersonal theory)(SE 21)에 입각한 새로운 이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새로운 이성이란 데카르트의 Cogito개념과는 달리 현상이면에 존재하는 영원을 꿰뚫어 보는 직관(intelligence and will)이다. 그는 이러한 직관적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 경험의 총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의 죄와 죽음 및 구원의 종교적 모티프를 시 문학에 도입하여 무의미한 현실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Eliot의 문학과 종교는 인간을 바탕으로 종교를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Eliot의 시에 나타난 종교적 색채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종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고도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 사실 서양의 종교는 현상세계와 초월세계의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한 이원론에 근거한다면 동양의 종교는 현상세계와 형이상학 세계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일원론에 가깝다. 전자가 초월적이며 믿음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내재적이며 행위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liot의 종교는 이러한 양면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사회의 허구적이고 편파적인 구원의 논리를 보다 보편타당한 구원의 의미로 전환하고자 노력한 Eliot의 신앙에 연유한다.

물론 동양에 대한 서양문학의 관심은 Eliot이전에도 Arthur Schopenhauer, Friedrich Nietzsche, Oswald Spengler, Herman Hesse등의 철학가들을 비롯해서 Emerson, Whitman 그리고 Irving Babbitt와 Ezra Pound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었다.<sup>5)</sup>

Eliot가 동양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Harvard대학의 학창시절부터 Irving Babbitt, Charles Lehman, 그리고 James Woods의 영향아래 인도철학과 Sanskrit어와 Pali어를 배우게 된 것과 세계대전으로 인한 반성적 시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Eliot는 *After Strange Gods* 에서 동양사상, 특히 인도

4) Kim, Young-Ho, *Whitman and Han Yong-Un*, (Seoul : Soongsil Univ. Press, 1987), pp. 19-55. 참조, its fundamental base was a monism, the belief in “the unity of the world and God” and “the immanence of God” in the world.

철학을 수용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A good half of the effort of understanding what the Indian philosophers were after – and their subtleties make make most of the great European philosophers look like schoolboys – lay in trying to erase from my mind all the categories and kinds of distinction common to European philosophy from the time of Greeks. My previous and concomitant study of European philosophy was hardly better than an obstacle. And I came to the conclusion – seeing also that the “influence” of Bramin and Buddhist thought upon Europe, as in Schopenhauer, Hartman, and Duessen, had largely been through romantic misunderstanding – that my only hope of really penetrating to the heart of that mystery would lie in forgetting how to think and feel as an American or a European : which, for practical as well as sentimental reasons, I did not wish to do. (43-44)

Eliot는 서양철학의 분석적 사고, 실증주의, 그리고 자연주의와 견주어 인도철학을 고찰할 때 서양철학의 빗나간 관점을 지적하면서 회랍시대부터 유럽 전체에 고유된 모든 특성, 즉 개념을 통해 사물의 인식을 체계화하려는 경향을 인식의 장애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Eliot의 시는 서양철학의 빗나간 시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확한 사물의 본질을 직관으로 인식하려는 동양종교의 신비주의를 끌어들이다. 정확한 사물을 인식하려는 Eliot의 동양의 신비적인 열정은 특정한 국가에 제한될 수 없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와 신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천륜으로 맺어진 불

- 5) 김태진외 3인, 『미국문학과 동양』 (서울 : 한신문화사, 1992), pp. 7-12. 참조, 미국문학사에서 동양에 대한 관심은 미국인의 개척정신의 발현에서 출발한다. Crevecoeur가 미국인을 “the western pilgrims, who are carrying along with them that great mass of arts, sciences, vigour, and industry which began long since in the east; they will finish the great circle.”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미국작가들은 동양 에 대한 개척의욕과 관계되는 존재의식의 한 양상을 탐구해왔다.

변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그는 결코 미국이나 유럽에 국한될 수 없는 범 세계적인 존재이기를 갈망한다.

결국 Eliot가 제시하는 길은 단지 기독교적인 세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종교, 즉 불교, 힌두교 그리고 고전문학의 신화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인간의 삶속에 담긴 종교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T. S. Eliot이 시작품에 나타나 있는 제종교의 양상을 검토하고 그의 문학과 종교사상과의 관계와, 문학과 종교를 통한 작가의 인간과 사회의 구원사상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liot가 이러한 동서고금의 종교적인 요소를 시문학에 담는 것은 현대의 병적 증후군을 치료하여 인간과 사회를 구원하려는 의도에 근거한다. 그는 마비된 도시의 무책임, 무기력 그리고 무감각을 현대의 질병으로 진단하고 인간의 유익함보다는 편리함을 조장하는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를 질병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특히 상업주의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욕망을 자극하여 의사소통의 단절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과 같은 공동체의 응집력을 와해시킨다. 이러한 병적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Freud가 심리학에 몰두했다면 Eliot는 종교와 문학에 몰두한다.

먼저 힌두교를 통해서 Eliot는 개체(Atman)가 전체(Brahman)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겸허한 자세를 수용한다. 이러한 겸손과 존경의 자세는 천륜을 따르는 신적 사랑을 의미한다. 힌두교를 수용한 Eliot는 시에 있어서도 몰개성 이론을 확립한다. 역사 의식속에 개인의 재능이 매몰된다는 겸허한 태도는 무책임한 사회현상에 일격을 가하는 개인적 책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질병가운데 하나를 치료한다. 불교에 있어서 Eliot는 허무(nothing)를 통해 열반에 이르러 마음의 평정(중용)을 이루는 인식의 전환을 깨닫는다.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Buddha는 욕망과 분노에 의한 번뇌를 다스림으로써 무기력한 분열된 정서를 활기찬 통합된 정서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불교의 각성을 통해 Eliot는 시에서 감수성의 통합이론을 세움으로써 진리를 깨달아 무기력한 사회현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비록 Eliot가 힌두교와 불교를 수용하기는 했으나 인도철학의 한계가 인간의 죄의식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는 영국 국교에 귀의할 만큼 기독교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기독교는 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무감각한 현대의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Eliot는 기독교의 성육신의 개념인 인성과 신성의 통합적 의미를 통해서 무감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과 도시 사회를 치료한

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꾸며진 황무지와 같은 목마른 사막에서 유령과 같은 불구자로 질병에 걸려 시달리는 현대인이 죄의식을 통해 자신의 현주소를 직시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의 의미와 그 속에서의 종교적 체험을 함으로써 무책임, 무감각,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감수성의 통합으로 깨닫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인간의 개인적 구원이며 이때 구원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따라서 개인 의식의 구원은 사회 전체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Eliot의 동양종교와 기독교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 종교적 현상과 문학과와의 관계, 즉 문학을 통한 그의 종교사상의 구체적 지향점인 사회구원의 주제를 심도깊게 추적해 나가고자 한다.

## II

먼저 Eliot 시에 나타난 힌두교적 요소와 그 사상을 조감하면 인도교(Hinduism)는 브라만니즘(Brahmanism)이다. 사실 인도교는 명확하게 하나의 종교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도 고대의 정통사상인 Brahmanism이 복잡한 민간 사상을 섭취해서 발전한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며 거기에는 다양한 교리와 의례를 비롯하여 제도, 풍습, 습관의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교의 출현은 Rajput가 불교도의 세력을 꺾고 민간 종교를 포용, 동화하면서 새로운 면모의 Bṛahmanism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이론적 사상체계는 *Upanishads*와 *Bagavad Gita*를 기초로 최고의 원리로서의 범(Brahman)과 본질적인 개아, 즉 아(我: Atman)의 차별상, 정신-물질의 상관상, 명지(明知)와 무명(無明)에 대한 사변상, 업(Karma), 윤회(Samsara) 그리고 해탈(Vimukti) 등으로 구성된다(철학 대사전 901-2). 특히 인도교는 *Bhagavad-Gita*의 영웅인 Arjuna<sup>6)</sup>의 경우처럼 도덕에 입각한 행동규범을 습득해 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단련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단련 과정에서 Eliot가 분석한 힌두교의 사상은 세 가지의 개념으로 지속에 전개된다. Cleo McNelly Kearns는 *Upanishads*와 *Bhagavad Gita*에 의한 Eliot의 경향을 선과 악을 꿰뚫어보는 중간상태의 개념, 자아에 대한 이원적 개념 그리고 범신과의 합일의 개념인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What interested him most were concepts involving certain "between states" after death, states in which the disembodied soul comes to understand the laws of good and evil that governed its time on earth; concepts involving the dual nature of the self, both empirical and transcendental; and concepts emphasizing the need for withdrawal from sensual life in order to realize oneness with Brahman. (37)

Eliot의 주된 관심을 끌었던 힌두교에 있어서 세가지의 중심 사상은 지상에서 시간에 걸쳐 있는 선과 악의 법칙, 즉 죽음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중간 상태 (between states), 그로 인한 경험적이고 초월적인 자아에 대한 이론적 분열, 그리고 범신과의 합일을 통해 감각적인 삶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먼저 Eliot 시에 있어서 힌두교의 경향은 죽음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중간상태, 즉 생중사, 절망과 희망, 그리고 지식과 경험 사이에 행위와 반 작용의 법칙(the law of action and reaction)인 업(Karma)의 개념이다. Eliot는 "Dry Salvages"에서 죽음의 순간인 중간상태, 즉 선과 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순간에 자아 행위의 결실은 생각할 것도 없이 타인들의 삶 속에서 결실로 맺어지는 하나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순간은 타인의 전체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모든 순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 6) Cleo McNelly Kearns, *T. S. Eliot and Indic Traditions : A Study in Poetry and Belief*.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7), p. 50  
The Gita consists of a dialogue between the warrior Arjuna and his teacher, charioteer, and guide Krishna, who is an avatar, or incarnation of universal divinity. Krishna's teaching is a synthesis of many lines of thought extending from the Upanishads through early Sankhya philosophy to the Yogic systems of meditation. The Gita expresses in both theistic and metaphysical terms the central tenets of those traditions.

At the moment which is not of action or inaction  
 You can receive this : "on whatever sphere of being  
 The mind of a man may be intent  
 At the time of death" - that is the one action  
 (And the time of death is every moment)  
 Which shall fructify in the lives of others:  
 And do not think of the fruit of action.  
 Fare forward.

.....  
 So Krishna, as when he admonished Arjuna  
 On the field of battle.<sup>7)</sup>

행위도 반작용도 아닌 중간 상태는 형제와 전쟁을 해야 할지를 망설이는 Arjuna에게 Krishna가 해준 충고, 전사란 오직 사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간상태의 행위는 행위도 반작용도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유익한 결실을 맺어주는 죽음의 순간으로서의 행위이다. Eliot 시에 있어서 이러한 중간상태는 "The Love Song of Alfred Prufrock"에서 부터 *The Waste Land* 그리고 *Four Quartets*에 이르는 전편의 시속에 생중사, 적극성과 수동성, 그리고 희망과 절망등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중간상태의 죽음은 Krishna의 충고를 고려해 볼때 진리(what is true)에 대한 추구라기 보다는 구원을 향한 도피(how shall I escape)를 위한 정신적 각성이다.

힌두교와 Eliot 사상의 두번째 공통점은 자아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다. 인도의 경전인 Vedas의 에펠로그인 Upanishads에서 표현된 자아의 이분법적 시각은 Deussen이 지적한 바처럼(Kearns 42) 경험적인 자아(the empirical form)와 심연의 자아(deep self)로 구분된다. 경험적 자아가 심연의 자아와 의사소통될 수 있는 언어는 종교의 언어인 mantra(a word of formula)<sup>8)</sup>, 즉 언어의 중심을

7) T. S. Eliot,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London : Faber & Faber, 1969), p. 188. 이후 CPP로 약칭함

차지하는 생명의 언어인 호흡과 침묵이다. The Waste Land에서의 "Shantih, Shantih, Shantih"와 같은 청각적인 언어는 경험적 자아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하는 종교의 언어이다. Eliot는 "Chorus From 'The Rock', 1934"에서 심연의 자아를 The Rock, The Watcher, 그리고 The Critic으로 분석하여 종교적인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적 자아와의 통합을 표현한다.

Chorus Leader:

Silence! and preserve respectful distance.

For I perceive approaching

The Rock. Who will perhaps answer our doubtings.

The Rock. The Watcher. The Stranger.

He who has seen what has happened

And who sees what is to happen.

The Witness. The Critic. The Stranger.

The God-shaken, in whom is the truth inborn.

("The Rock," CCP. 148.)

경험적 자아가 품은 의심에 해답을 제시해 주는 자는 반석이 되신 주(The Rock), 심연의 감시자, 비평가 그리고 선천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신성, 즉 심연의 자아이다. Eliot의 이분법적 시각은 경험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영육을 소유한 인간의 양면성을 의미한다. 그는 Deussen처럼 경험적 자아와 심연의 자아를 구분하여 그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꾀한다. 시작 형식에 있어서도 그는 경험에 입각한 Prufrock, Gerontion과 Simeon과 같은 화자와 초월적 작가 사이에 통합을 꾀함으로써 Brahman과 Atman의 종교적인 합일처럼 경험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결합시킨다.

Eliot's dual voice is emblematic of the oneness between

---

8) Ibid., p. 34. It(mantra) represents a mental presence of energy; by it something is produced, crystalized, in the mind.

creator and character, as Brahman is at one with atman, the witness with the empirically seen, the "sea of sound" with the "life of music that gives it form. (42)

힌두교와 Eliot의 사상의 세번째 공통점은 경험과 초월의 통합적 자아를 인식하기 위하여 감각적인 차원의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속의 현상과 결부된 상태에서 단지 금욕적인 실천의 문제가 아닌 내적 상태(inner state)를 재조정해야 하는 의지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힌두교에서 내적 균형(the balance of mind)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요가사상<sup>9)</sup>이다. 요가사상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여 자신의 열정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분열된 자아(the deep self and being)를 통합시키는 정신집중(Samadhi)으로의 육체적, 정신적 행위이다.

Basically Yoga-Sutras (a collection of short texts) begin with a definition of yoga as "a form of restriction" of the mind waves, which leads to the goal of Samadhi, which Woods renders as "concentration", that calm of mind that allows the identity of the deep self and being to become apparent. (59)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아(selflessness)에 도달할 수 있는 범신(Brahman)과의 합일이다. 신과의 합일은 인도의 신비철학을 담고 있는 *Upanishads*의 중심사상으로서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신의 절대세계로 승화하여 한계적 시간을 넘어 영원한 시간으로의 구원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Brahman과 Atman은 비록 상호 이질적인 무한성과 내재성, 포괄성과 주관성, 그리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대변하지만 상반된 두 개념의 변증법적인 종합체로의 화합을 의미한다. *Bhagavad Gita* 에서 Atman은 요가

9)Ibid., p.52. 요가사상은 세가지로 구분되는 바, Karma Yoga(the discipline of service), Jnana Yoga(the discipline of meditation and analysis), 그리고 bhakti Yoga(the discipline of worship)로서 힌두교의 수련과정이다.

를 수련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대상이고 Brahman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그들의 매개인 것이다.

이러한 인도철학이 Eliot에 끼친 영향력은 Eliot의 비평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 그의 시를 정의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Eliot는 시란 정서의 표출이 아닌 정서로부터의 도피(the escape from the emotion)(SE 21)라고 정의한다. 정서로부터의 도피는 육체적, 정신적 훈련과정인 Yoga사상처럼 정신집중, 명상 그리고 자아의 소멸과정을 겪는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예술적, 문학적 고뇌이다. 그가 시를 정의하는 과정을 과학적인 화학 작용<sup>10)</sup>과 비유하여 불가시적인 시인의 마음을 시각화함으로써 시란 시인의 주관적 정서를 전통의 거대한 흐름 속에 융화시키는 매물(depersonalization)의 현상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시인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간극을 융화시키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Eliot는 전통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역사의식(historical sense)을 강조한다. 기존의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역사의식이란 과거의 과거성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절된 시간의 개별성과는 달리 시간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This historical sense, which is a sense of the timeless as well as of the temporal and of the timeless and the temporal together, is what makes a writer most acutely conscious of his place in time, of his own contemporaneity. (SE 23)

시인의 마음을 매개체로 과거와 현재의 단절된 시간의 의미는 마치 두가지의 다른 기체가 platinum을 매개체로 새로운 황산을 산출해도 전혀 그 산물에는

---

10) T. S. Eliot, SE p. 23. The analogy was that of the catalyst. When two gases previously mentioned are mixed in the presence of filament of platinum, they form sulphurous acid. This combination takes place only if the platinum is present; nevertheless the newly formed acid contains no trace of platinum, and the platinum itself is apparently unaffected: has remained inert, neutral and unchanged.

platinum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상호 혼합하여 과거의 현재성이라는 새로운 전통으로 변화될 때 시인의 주관적인 도피, 즉 보다 가치있는 전통을 위한 지속적인 자아의 포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Eliot에게 예술가의 임무는 힌두교의 요가사상처럼 단절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 균형을 모색해 가는 연속적인 자아의 소멸(continual extinction of personality)이다. : The more perfect the artist, the more completely separate in him will be the man who suffers and the mind which creates: the more perfectly will the mind digest and transmute the passions which are its material (SE 7-8). 그는 "Gerontion"에서 내적 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감각적인 자아인 육체를 흥가에 비유함으로써 감각적 자아 소멸의 필요성을 밝힌다.

I have lost my passion : why should I need to keep it  
 Since what is kept must be adulterated?  
 I have lost my sight, smell, hearing, taste and touch :  
 How should I use them for your closer contact?

with a thousand small deliberations  
 Protract the profit of their chilled delirium,  
 Excite the membrane, when the sense has cooled  
 with pungent sauces, multiply variety  
 In a wilderness of mirrors . . . . ("Gerontion", CPP 38)

감각적인 열정은 싸늘한 망상만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되어야 할 요인이다. 감각의 상실은 심연의 자아의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 2의 탄생을 의미한다. 바로 감각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은 통합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적 균형을 이루어 준다. Eliot는 감각을 벗어나는 순간이 종교적 체험의 순간으로서 삶과 죽음의 교차점, 주체와 객체의 통합, 그리고 "시간속에서 시간을 정복하는 정점"이라고 파악하는 듯하다.

결국 인도교가 Eliot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은 감각적 자아의 통제라는 육체

적.정신적 수련으로서 개체적 존재가 거대한 전체속에 순응하여 집착을 버리고 Karma의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다. 행위도 반작용도 아닌 정점의 순간은 요가를 통한 정신 집중에서 비롯된 균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Eliot의 몰개성 이론으로 흡수되어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Eliot는 힌두교의 동양 종교를 통해서 무책임한 사회전반의 감각적인 개인행위를 통제.조절함으로써 개인이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자각케하는 동시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 상에서의 새로운 개인적 탄생을 제시한다. 이것은 사회를 부패시키는 무감각. 무기력. 무책임의 현상가운데 하나를 치료하는 Eliot의 사회구원을 위한 첫단계이다.

### Ⅲ. 결론

Eliot는 『단테論』(1929)에서 *Bhagavad Gita*는 자신의 경험에 있어 *Divine Comedy*에 다음가는 위대한 철학시(SE 258)라고 언급할 만큼 힌두교에 관심이 깊었지만 *The Waste Land*를 집필할 때 Edwin Arnold경의 *Light of Asia*, Babbit의 "Buddha and the Occident", Warren의 *Buddhism in Translation*와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원전등을 통해서 Buddhist가 되고 싶을 정도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Kearns 67). 특히 Pali어로된 불교원전의 중요성이 영혼의 영생과 구원에 있어서 Buddha의 역할, 즉 영원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욕망을 거부하는 Buddha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바 불교도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Eliot의 몰개성 이론과 감수성의 통합이론을 고려해 볼 때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This early immersion in Buddhist texts, begun under Lanman, built on and deepened the impressionistic sense of the Buddha's life and teachings Eliot had gleaned from his boyhood reading of *The Light of Asia*, and the resulting combination of poetic imagery and metaphysical argument became a permanent influence on his philosophical ideas, his religious beliefs, and a

number of the most dominant and forceful images and symbolic patterns of his work. (Kearns 73-74)

먼저 그 불교의 요지는 4제(四諦). 12인연(因緣). 8정도(正道)등이다. 4제 가운데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는 인간의 현실계 또는 고통의 현실계로 되는 원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며 멸제(滅諦)와 도제(道諦)는 인간의 이상계와 그곳에 이르는 방법을 밝히는 것이다. 12인연이란 우주만물의 생성발전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8정도는 4제 가운데 도제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후세에 논의되는 불교의 모든 종교적·철학적 교리문제는 모두 4제, 12인연, 8정도설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철학대사전 446-7).

Eliot가 불교에서 끌어낸 상징과 이미지의 방식은 부정적인 논리(The Negative way)에서 비롯된다. 부정적인 논리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편견과 착각을 역류하는 것으로서 그 저변에 흐르는 진리를 포착하려는 노력이다. 불교에서 그가 감명받은 것은 모든 순간마다 변하는 다발적인 현상세계와 인간이 내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구성 성분이 되는 전체의 덩어리(a congeries)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Four Quartets* 에서 보면 4원소와 4계절의 순환이 상호간의 연결속에 전체를 연결한다. 다시말해서 물, 공기, 불 그리고 흙과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은 시간과 공간이 유동적 전체를 삶과 죽음의 조화속에 전체 덩어리를 구성한다. 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공기를, 공기는 불을 생성한다. 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을 잃고 열매를, 열매는 자신을 잃고 씨앗을 낳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마음을 잃어 허공(selflessness)이 된다. 이러한 전체덩어리로 구성된 우주의 생성원리는 나 아닌 다른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허무와 실재에 대한 영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In succession  
House rise and fall, crumble, are extended,  
Are moved, destroyed, restored, or in their place  
Is an open field, or a factory or a by-pass.  
Old stone to new building, old timber to new fires,



Old fires to ashes, and ashes to the earth  
 Which is already flesh, fur and faces,  
 Bone of man and beast, constalk and leaf.  
 Houses live and die : ( East Coker I , CCP. 177. )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과 끝은 동시 선상에 있으며 삶과 죽음도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한다. 고목이 불을 일으키고, 불이 재로 변하고 재가 흙으로 변하는 과정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서 시작인 동시에 끝이다. 이는 불교에 있어서 12 인연에 해당하는 우주만물의 생성발전의 원리를 반영한다.

특히 불교에서 중심사상은 인간의 현상계와 이상계를 통합하는 공(Nothingness)과 열반(Nirvana)의 개념이다. 이러한 사상은 악행에서 조차도 보살(Bodhi)이 존재하며 삶과 죽음에서조차도 열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도 철학자인 Nichiren은 “Vain is the holding of the Lotus of The Truth without this heritage of faith”라고 결론을 내린다. 불교의 상징의 꽃인 Lotus는 숨은 뜻(Hidden meaning)과 현상의 의미(manifest meaning)의 상호 관련성을 표시하는 듯 꽃과 열매를 동시에 맺게 한다(Kearns 83-84). 철학자인 Nagarjuna의 수수께끼같은 Samsara의 용어는 현상과 실재가 망우수의 열매와 꽃처럼 달리 보일지라도 동일하다는 일원론 즉, 현상계와 이상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불교의 일원론은 비록 인간의 형체는 제각기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 있을 지라도 현상이면에 비치는 그림자로서 동일하다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다. 이세상에는 크지않은 것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우주와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모든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다. 이것이 공이며 열반이다.

both (consciousness and enlightenment) involve an immersion in and acceptance of the world of consensual reality, which is not diminished but enhanced by the recognition of its ontological nonbeing or what Buddhism calls its “nothingness”. (Kearns 79)

인도철학에서 현세는 번뇌와 무상이며 번뇌의 원인은 욕망과 분노이다. 그러나 공(Nothingness)의 각성을 통해 얻는 열반과 윤회(Nirvana & Samsara)의 사상은 무지와 번뇌로부터의 해방이며 종교적인 체험인 동시에 구원이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이며 열반이다. 열반이란 욕망과 번뇌의 화염을 지혜에 의하여 고뇌가 소멸되도록 소화시킨 상태를 의미한다. Eliot는 이러한 윤회가 열반과 같은 불교 사상을 망우수와 불과 같은 시적 이미지로 표현한다.

Eliot가 "Burnt Norton"에서 불교의 상징적인 꽃인 망우수(the Lotus)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그의 관심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So we moved, and they, in a formal pattern,  
 Along the empty alley, into the box circle,  
 To look down into the drained pool.  
 Dry the pool, dry concrete, brown edged,  
 And the pool was filled with water out of sunlight,  
 And the lotus rose, quietly, quietly,  
 The surface glittered out of heart of light,  
 And they were behind us, reflected in the pool.  
 Then a cloud passed, and the pool was empty.  
 Go, said the bird, for the leaves were full of children,  
 Hidden excitedly containing laughter.  
 Go, go, go, said the bird : human kind  
 Cannot bear very much reality.  
 Time past and time future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Burnt Norton, CPP 172)

우리(We)와 그들(they)이 분리된 상황에서 새는 인간의 무지를 비웃는 듯 영원한 현재인 한 정점으로 지향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여기서 영원

한 현재란 지금까지 있었던 일(What has been)과 있을 수 있었던 일(What might have been)이 지향하는 통합의 지점으로서 불교가 추구하는 열반의 순간이다. 있을 수 있었던 일은 빛의 중심으로서 표면에 연못을 가득 채우고 구름이 지나는 순간 연못은 텅 빈다. 나뭇잎에 가득한 아이들의 존재는 “box circle” 안에서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숨겨진 채 미소를 머금고 있다. Eliot는 “Pool”의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꽃과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있는 망우수의 꽃처럼 “filled와 empty”가 영원한 현재에 존재함을 제시한다. 이는 있음인 동시에 없음이며 시작도 끝도 아니다.

Eliot는 망우수(Lotus)의 이미지 이외에도 불과 같은 불교의 고뇌의 이미지를 “Fire Sermon”에서 다루고 있다.

Burning burning burning burning

O Lord Thou pluckest me out

O Lord Thou pluckest me out

Burning (*The Waste Land*, CPP 70)

불의 상징은 세속적인 고통스러운 경험과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정화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고통의 경험으로서의 불의 이미지를 향락이 휩쓸고 간 잔해, 즉 “broken tent”, “the last fingers of loaf”, 그리고 “Unreal city”로 대변되는 감각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The Sound of horns and motors”, “the human engine” 그리고 “automatic hand”와 같이 현대의 기계주의를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등가로 설정하는 무감각한 욕망적 인간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기계의 폭행속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인간은 타성에 젖은 현대인으로서 자아만을 고집하는 공격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인간의 도시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욕망을 대변하는 불의 도시이다.

정화의 차원에서의 불의 이미지는 unreal city를 real city로 변화시키고 time-kept city를 timeless city로 변화시키는 감각적, 정신적 인식의 정화, 즉 불교에 있어서 열반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열반이란 욕망과 번뇌의 화염을

지혜에 의하여 소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의 의미로서의 불은 지혜에 대한 열정을 암시한다. Eliot가 What shall I resent?라고 분개하면서 서양철학에 다소 불만을 느끼고 동양 철학에서 어느 정도의 지혜를 습득하였다. 불교에서 습득한 Eliot의 지혜는 공(nothingness)과 중용(Middle way)에서 비롯된다.

The diagnosis is that "life is pain" (dukka, as Eliot transcribed it), and the remedy is the suppression of that pain through the cessation of desire attained by mental discipline. Before such discipline can be enjoyed, however, the patient must be convinced of the diagnosis, and this conviction can come only through deeper awareness of suffering . . . .The "sharp compassion of the healer's art" of which Eliot speaks in "East Coker"(I), is, like the Buddha's, a compassion that reminds us that "to be restored, our sickness must grow worse."(Kearns 81-82)

이러한 지혜는 인간중심적인 욕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에 입각한 예지로서 극단적인 것 또는 서로 충돌하는 양극의 중간을 취하는 현명한 길이다. 욕망의 삶과 죽음사이에서 Eliot가 취한 지혜는 불교에서의 번뇌 (life is pain)이다. 사실 번뇌의 원인은 욕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욕망을 비울 때 고통은 사라지고 욕망과 죽음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Eliot가 시에서 주로 다루는 양극단적 요소는 삶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영원, 시작과 끝, 선과 악, 영과 육, 원시성과 퇴폐성, 문명과 문화 그리고 이성과 감성등의 충돌이라는 패턴을 이루고 있다.(Crawford 2)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려는 Eliot의 지혜는 Pruflock이 회피하는 "overwhelming question", The Waste Land에서 "the voice of thunder" 그리고 "Little Gidding"에서 시인이 언급한 "unimaginable zero summer"의 해답을 얻기 위한 감수성의 통합이다. 형이상학과 시인들의 어울리지 않는 어울림(discordia Concors)은 상호이질적으로 분리된 극과 극의 충돌이라 하더라도 이는 장식에 불과한 기법이 아니라 의미를 창출하기 때문에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천륜에 입각

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형이상학적인 시들을 재평가함으로써 이성  
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예지의 기원이 천륜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비롯되  
어 문학적인 차원으로 연결된 것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종교와 문학이 결코 별개  
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liot links the problems of metaphysical poetry with those  
of meditation and traces the origin of the conceit to sermonic  
rhetoric ( mentioning in particular the "conceit" of fire in the  
Buddha's Fire Sermon, which he had used in a very  
metaphysical mode in *The Waste Land*). This connection  
between religions and literary discourses is extended to the link  
between metaphysical poetry and manuals of meditation.(Kearns  
16)

형이상학과 시인과 유사한 Eliot의 지혜란 Hugh Kenner가 Eliot's  
Voice(Kenner 4-5)라고 명명했고 그것을 A. D. Moody 가 Eliot's Wisdom이  
라고 칭했던 것처럼 감수성의 통합으로 종교와 문학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몰  
개성이며 만인에게 공감을 가능케 해주는 언어(logos xunos) 이다. 이러한 점에  
서 세속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동시에 종교적인 정화를 의미하는 불의 상징은 이성  
과 감성의 분열 상태인 현대인을 하여금 세속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동시에 심  
어 줄 수 있는 만인의 언어(the same for all man everywhere)(Kearns 264)  
이다. 결국 만인의 언어로서 고통과 정화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있는 불은 불교의  
상징인 열매와 꽃을 동시에 담고있는 망우수처럼 고통과 정화의 상반된 요소가 되  
면서 새로운 의미인 무(nothing)와 중용의 도, 뿐만아니라 감수성의 통합을 의미  
한다. 표면적 의미와 심연의 의미가 충돌하여 생기는 공백은 새로운 의미의 영역  
으로서 과거의 죽음과 새로운 출생을 공유하는 지점이다. 이것이 불교의 열반이며  
Eliot의 정점이다. 결국 불교사상에서 Eliot가 흡수한 것은 망우수와 불의 이미지  
가 반영하듯 사회속에 마비된 무기력한 개인이 현상계와 이상계를 통합함으로써  
활력을 회복하는 삶과 죽음의 공존, 즉 존재의 정점이다. 따라서 Eliots는 불교사

상을 통해서 단지 현상계만이 얹인 줄 착각한 무지의 세계를 현상계와 이상계가 통합된 진정한 삶의 세계로 전환시킴으로써, 마치 힌두교를 통해 사회의 무책임을 책임감으로 전환시킨 것 처럼, 자아에 대한 무지를 깨달아 사회속의 자아의 위치와 역할 즉 정체성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를 오염시키는 무감각과 무기력 가운데 무기력을 치료하기 때문에 Eliot의 사회구원을 위한 두번째 단계이다.

힌두교와 불교에 있어서 Eliot의 중심 모티브인 '삶과 죽음'의 경계는 선(禪)을 통한 무(nothingness)의 체험 그리고 그 무를 통한 열반의 개념으로 무너져 무의미하고 인위적인 현대인이 책임감 있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무한한 존재로의 거듭남이라는 구원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Eliot에게 인도 철학의 한계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정확한 시각, 즉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Eliot's fundamental objection to Indic religion, however, whether well founded or not, was what he saw as its failur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reality of human sin. "I can clean my skin, Purity my life, void my mind," says Harry in *The Family Reunion* (not, of course, the most psychologically balanced of speakers), "But always the filthiness, that lies a little deeper" (Kearns 138)

인도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에서 인간의 고뇌와 번뇌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반면에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의 절망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통한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기독교의 죄의식은 인도 철학에 입각한 Karma와 같이 전생의 인연에 대한 무지와는 달리 직접적인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정화차원에서 보다 큰 의미를 담고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Eliot의 시각을 살펴본다.

---

11) T. S. Eliot, *On Poetry and Poets* (Toronto : Noonday Press, 1961), p. 264. 이후 OPP로 약칭함.

## IV

Eliot의 시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in-betweenness)이외에 또 하나의 중심 모티브는 죄의식의 자각이다. Eliot는 『Baudelaire論』(1930)에서 죄와 구원의 문제를 솔직하게 서술한 Baudelaire를 훌륭한 작가(SP 92-93)로 평하고 The Pens es of Pascal의 서문에서 수학자인 Pascal이 Montaigne와는 달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종교적인 작가이며 그의 작품인 Pens e를 과학과 종교를 결합시키는 걸작(SP 158-159)으로 평한다. Eliot는 과학이 종교의 하인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을 수용할 뿐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영적 자만의 죄(the sin of spiritual pride)를 범하기 때문에 Decartes, Voltaire, Montaigne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독자들로 하여금 Pascal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o understand the method which Pascal employs, the reader must be prepared to follow the process of the mind of intelligent believer. The Christian thinker - and I mean the man who is trying consciously and conscientiously to explain to himself the sequence which culminates in faith, rather than the public apologist - proceeds by rejection and elimination. He finds the world to be so and so; He finds its character inexplicable by any non-religious theory: among religions he finds Christianity, and Catholic Christianity, to account most satisfactorily for the world and especially for the moral world within; and thus, by what Newman calls "powerful and concurrent reason", he finds himself inexorably committed to the dogma of the Incarnation. (SP 155)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의를 발견하려면 비종교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Newman의 이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Newman에 이성은 데카르트의 cogito와 Bergson의 *lan vital*과는 달리 신의 섭리에 접근하려는 신비적 지혜이다. H. L. Weatherby는 *The Keen Delight*에서 신(The God)을 인식하는 지혜가 세가지 있는데, 그들은 형이상학적, 신학적 그리고 신비적 지혜라고 밝힌다. 형이상학적 지혜는 이성에 기초한 반면에 신학적, 신비적 지혜는 믿음(faith)에 근거한다(3-5). Newman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거부하고 경험을 수용하기 때문에 신학에 논리를 덧붙인 스콜라 철학과 같은 주지설을 반대했으며 인격과 양심의 권위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Newman의 영향으로 Eliot의 지혜는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매개체로 간주하여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비적 지혜이다. 따라서 Eliot의 중심 모티브인 죄의식이 경험에 기초한다는 점, 즉 기독교에서 탐욕과 호기심으로 인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the Incarnation의 교리를 바탕으로 죽음의 뿌리인 죄가 십자가의 상징 즉 사랑에 의해 변화됨을 엿볼 수 있다.

Eliot는 선조와 조부의 종교적인 영향하에 청교도와 유니테리언교를 접하게 되지만 Calvinism의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청교도와 성자와 성령을 거부하고 성부만을 믿는 유니테리언교는 Eliot에게 부적당하다. 청교도는 선별적인 교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유니테리언교는 선과 악의 개념을 통한 죄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인에 대한 사회적인 도덕상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그는 빗나간 교리상의 문제점을 기독교에 위배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The compulsion to live in such a way that Christian behaviour is only possible in a restricted number of situations, is a very powerful force against Christianity; for behaviour is potent to affect belief, as belief to affect behaviour. (SP 215)

그는 믿음과 행위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위는 『Baudelaire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sup>12)</sup> 죄와 구원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만약 교리와 행위가 분리된다면 종교, 문학 그리고 사회는 분리되어 상호관계없이 별개의 역할만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교리와 행위가 결합된다면 종교, 문학 그리고 사



회가 결합된 자연스런 전체(natural wholeness)로서의 기독교 공동체가 출현된다는 것이 Eliot의 입장이다.

우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며 모세의 시대에는 출애굽중에 유대민족과 십계명의 계약(covenant)을 맺은 여호와(Jahveh)하나님이다. 그러나 구약의 신은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종교의 교정사상으로 굳어져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여호와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가 악한자이면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48절의 내용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유대민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포괄하는 범세계적인 교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버지로 삼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예수의 종교적, 윤리적 대원장이다. 바울은 좀더 상세한 교리체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인이며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불가능하며 이방인 역시 부패에 빠져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십자가에 바쳐 만민의 속죄가 완성되어 죄의 값인 죽음이 극복된다. 이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결을 통한 인간 변혁을 실현하여 새 인류로서의 새로운 속량(贖良)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철학대사전 138-40).

Eliot 시에 있어서 죄의 모티브는 사도 바울의 체계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신의 원죄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는 연결고리이다. 성육신의 개념은 정신과 물질, 영원과 시간, 신성과 인성 그리고 관념과 경험이라는 이원적 개념이 일원론으로 통합되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합치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과의 계약, 즉 천륜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는 선악과를 통한 인간과 신의 단절인 동시에 그것을 고리로 삼아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체가

12) Ibid., p. 192-193. Baudelaire perceived that what really matters is Sin and Redemption . . . .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 Sin is a New Life . . . . That damnation itself is an immediate form of salvation—of salvation from the ennui of modern life.

다.

6부로 구성된 "Ash-Wednesday"에서 그는 죄의식의 자각으로 탄식과 속죄를 갈망하는 겸허한 인간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종교적 개념, 즉 죄와 사랑을 묘사한다. 성회 수요일이란 시의 제목은 사순절의 첫날을 의미한다. 사순절이란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의 40일동안 참회자의 머리에 재를 뿌려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에 완성된 이 시는 I부에서는 죄에 대한 인식, II부에서는 성녀에 대한 구애, 그리고 신과의 합일, III부에서는 구원의 과정, IV부에서는 구원의 메시지, V부에서는 신의 말씀과 화자의 명상, 그리고 VI부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각각 묘사한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화자는 "infirm glory of the positive hour"을 자각하면서 신(God)과 분리된 경험의 세계가 죄로 물든 나날임을 천명한다. 창세기 3장에서처럼 에덴동산에서 추방될 당시를 회고해 볼 때<sup>13)</sup> 화자는 세속의 세상에서 신의 세계로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

Because these wings are no longer wings to fly  
 But merely vans to beat the air  
 The air which is now thoroughly small and dry  
 Smaller and dryer than the will  
 Teach us to care and not to care  
 Teach us to sit still.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Pray for u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sh-Wednesday*, CPP 92)

신과의 단절된 삶을 인식한 화자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참회와 기독교의 비전

13) George Williamson, *A Reader's Guide to T. S. Eliot* (Thames and Hudson, 1955), p. 168. "Remember, man that thou art dust, and unto dust thou shalt return."

을 제시한다. 특히, "now"와 "at the hour of our death"는 죄를 고백하는 순간 이전의 자아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한 순간이며 육의 죽음이 아닌 의식의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의 전체에서 화자가 Because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도 속죄를 위한 언어적 몸부림으로서 산소가 부족한 독수리의 날개에 비유하여 참회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의식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의식에서 화자는 보다 높은 꿈(higher dream)을 염원하며 Christ의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징조를 깨닫는다. Eliot는 이 시에서 높은 꿈과 낮은 꿈의 대조를 이용하여 정죄와 자아희생(renunciation)의 의미를 묘사한다.(Gish 70)

Who walked between  
 The various ranks of varied queen  
 Going in white and blue, in Mary's colour,  
 Talking of trivial things  
 In ignorance and in knowledge of eternal colour  
 . . . . .  
 Redeem  
 The time. Redeem  
 The unread vision in the higher dream  
 while jewelled unicorns draw by the gilded hearse.

The silent sister veiled in white and blue  
 Between the yews, behind the garden god,  
 Whose flute is breathless, bent her head and signed but  
 spoke no word

But the fountain sprang up and the bird sang down  
 Redeem the time, redeem the dream  
 The token of the word unheard, unspoken.

("AW", CPP 94-5)

시의 전체에서 "Between"의 반복은 이 시의 기본적인 대조, 즉 세속의 세계와 신의 존재, 사막과 정원의 대조(Williams 169)를 암시한다. 상호대립되는 두 공간 사이에 화자는 veiled, unread, unheard, 그리고 unspoken과 같은 숨겨진 존재와의 합일을 통한 구원을 갈망할 때 Christ를 상징하는 일각수가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표시하는 영구차를 끌고(Williams 178) 샘이 솟고 새가 노래부름을 인식한다. 영구차를 끄는 일각수는 세속의 세계와 신의 존재를 결합시키는 존재이며 샘과 새 역시 시각적, 청각적으로 분리된 두 공간을 매워 주는 상징적인 대상이다. 이들은 사랑의 실천자들로서 사막에 생명과 구원의 비전을 희생적 사랑으로 제시한다. 비록 성호(signed)를 표시하고 아무 말 없이 베일에 가려진 자매 역시 십자가의 상징인 희생적 사랑을 음미하는 듯 신의 정원에서 묵시적인 인간관계를 회구한다. 이와 같은 희생적 사랑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리고 오염을 막아주는 샘과 같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언어 이전의 행위와 경험에 초점을 둔다.

결국 기독교에 대한 Eliot의 시각은 죄의식의 자각을 통한 희생적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은 Prufrock이 인식한 사회의 무감각한 마비현상("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 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수동적인 불교와는 달리 능동적인 구원의 비전이다.

I sat upon the shore  
 Fishing, with the dried plain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The Waste Land*, CPP 74)

마치 사도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듯이, 낚시질하는 화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London을 구하려 한다. 사울의 회개와 소명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9:1-19; 22:5-16; 26:12-18)이나 나온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 투옥하는 임무를 맡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모하여 사도바울이 된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화자는 바울이 경험한 죄의식을 통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Eliot는 기독교의 성육신 즉 죄의식의 자각을 통한 희생적 사랑의 개념을 통해서 무감각하게 마비된 사회 전체를 유기적인 사회로 전환코자 한다. 희생적 사랑은 마치 복극성을 중심으로 우주가 순환하는 것 처럼 인간의 모든 감정을 통제. 조절하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케하는 중심적 요인이다. Eliot는 기독교를 통해 아가페적 사랑을 제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보편적 형식을 구축한다. 이것은 불교와 힌두교가 무책임과 무기력을 책임감과 활력소로 전환시킨 것처럼 무감각한 사회를 유기적인 사회로 전환시키는 Eliot의 사회구원 사상의 핵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liot의 종교는 지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믿음의 투쟁으로서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색채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힌두교의 경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은 종교의 이상이 현실에 투영되는 종교적 문학성이며 불교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은 죽음에 무력한 존재로 하여금 그 한계를 극복케 하는 문학적 종교성이다. 또한 기독교의 경우 죄의식을 통한 믿음과 행위의 일치하는 현실과 이상,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문학과 종교를 일원화하는 총체적 인간의 경험이다. 비록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번뇌, 허무 그리고 죄의 근원인 단혀진 마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 힌두교에 있어서 요가 사상을 통한 해탈, 불교에 있어서 중용을 통한 열반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죄의식의 자각을 통한 성육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뿐만 아니라 종교적 교리간의 단절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정점이다. 이것이 바로 Eliot의 종교성인 동시에 문학성이다. Eliot는 1951년에 Tagore의 양자에 의해 편집된 책, *Preface to Gangulee's Thoughts of Meditation* 의 서문에서 진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Truth itself is never occult he insisted, never confined to one religion or tradition. Yet the authors of these texts -

Christian, Hindu, Buddhist, Sufi, Jewish - would have "repudiated" any suggestion that their individual traditions did not matter. In fact, it was only in relation to his own religion that the insights of any one of these men had its significance to him". (Kearns 159)

Eliot에게 진리란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정치적 이념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국한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변치않는 동시에 만인에게 공통적인 보편적 개념이다. 비록 Terry Eagleton과 Raymond Williams같은 Post-Marxists들이 Eliot의 후기 시에 있어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종교를 도입한 것이라고 Eliot를 비난하지만 사실 매몰된 진리를 표출하는 Eliot의 문학과 종교는 종교를 통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최선의 방책이다. 따라서 Eliot의 예술의 중심적 주제와 종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사회구원사상을 다 음장에서 심도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 V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시대적 상황은 낭만주의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에 펼쳐진 사상적 혼돈과 역사적 혼란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양상으로 변지면서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표면적 결말로 이어지던 때였다. 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과 적자 생존의 논리, Karl Mark의 노동의 소외와 경제의 새로운 논리, 그리고 F. Nietzsche의 절대자(God)의 죽음을 예시하는 새로운 도덕의 계보학등의 출현으로 사회와 종교가 분리되고, 종교와 예술이 분리됨에 따라 인식의 혼란, 감수성의 분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파행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치적인 협상으로 난제를 풀어 보려 했던 흔적은 1919년의 베르사유의 협약, 1925년의 로카르노 조약 그리고 1928년의 켈로그 브라이언트 조약등과 같이 유럽 전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엿볼 수 있다 (McDiarmid 1-3).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낙천적인 조약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의 실업률의 급증과 노조, 연이어 30년대의 경제 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등과 같은 사회의 위기와 몰락을 막

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시대에는 시대적 이상과 임무가 있었지만 1920년대와 30년대와 같이 절박한 시대는 예전에 없었다. E. M. Forster는 이 시대를 Militant Creeds라고 명명했으며(Forster 67) Christopher Dowson은 정치적인 조약만으로 사회를 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Dowson 238-239).

이와 같은 세계상황 앞에서 Eliot의 정치적 관심은 정치 이전의 관심사(Pre-Political area)로서 윤리와 종교를 혼합하여 사회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체계를 재발견하려는 것이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Eliot는 1917년에 The Decline of the West를 썼던 O. Spengler처럼 역사적 진보에 대한 반성적 입장에서 영적, 정신적 기반을 토대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 Eliot에게 중요한 두가지의 문제점은 인간의 보편적 체계인 형이상학적 진리의 추구하고 병든 영혼을 구원하려는 갈망이다. 이러한 갈망때문에 Eliot는 인도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왕당파, 문학적으로 고전주의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성공회의 일원으로 표명했다. 그는 서구문명 전체를 자신의 교구로 삼아 마치 The Waste Land에서 나타난 선지자 Ezekiel처럼 전체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 : Son of man . . . . you knew only / A heap of broken images . . . . (CPP 61)

파편적인 이미지란 빅토리아 시대에 전형적인 경향인 사상의 분리, 예술, 철학, 종교, 윤리 그리고 문학등의 사회전반적인 다양화와 고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화와 고립화는 낭만주의적인 요소로서 사막에서 방황하는 유목민의 이미지로서 Eliot에게 비난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Eliot는 빅토리아 시대의 "art for art's sake"와는 달리 사회의 질서와 분리될 수 없는 예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For it is ultimately the function of art, in imposing a credible order upon ordinary reality, to bring us to a condition of serenity, stillness, and reconciliation; and then leave us, as Virgil left Dante, to proceed toward a region where that guide can avail us no farther" (OPP 94)

그는 사회와 예술 그리고 종교를 결합시킴으로써 혼탁한 사회의식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러한 질서의식은 사회와 분리된 채 방황하는 개인적 고립이 아니라 사회의 무너진 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방랑자의 의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liot의 시는 비록 초기시와 후기시에 있어서 전자가 사회 비판적이라면 후자가 사회 구원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하더라도 마치 전체가 하나의 시인 것처럼 일관된 주제, 이미지 그리고 언어를 담고 있다. 그는 Shakespeare의 작품을 논함에 있어서 한 작가의 작품은 반드시 일관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sup>14)</sup> 한 바 있다. 그의 시의 일관된 주제는 Dante와 Shakespeare처럼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인성을 추구하는 사회구원이다. 주제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사회구원이라는 주제와 걸맞는 종교적 이미지와 신화, 그리고 문학적 산물과 역사적 인물들의 총체적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 총체적 이미지이며 시의 언어에서도 역시 논리와 역설의 혼합, 상징적 의미가 담긴 단편적인 언어 그리고 영어 이외에 불어와 라틴어등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Eliot의 시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포괄한 총체적인 인간 경험을 다룬다. 이러한 인간 경험은 D. H. Lawrence의 육과 혈이 아닌 흰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적인 종교적 체험, 사회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신화등의 총체적 경험이다. Eliot는 이러한 인간의 총체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 조건의 악의 근원을 추구한 결과, 세가지의 상징으로 사회악의 근원을 표현하다. 먼저 소외, 마비, 무목적인 동시에 무의미한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Prufrock은 사회속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마음과 행동사이에 분리된 마비상태로 사창가를 무의미하게 방황한다. 마취된 환자같은 저녁, 무목적적이고 무의미하게 떠다니는 인간의 의식을 상징하는 노란 안개, 그리고 현대인의 신경계를 상징하는 마술렌등 이 현대도시의 부정적인 인간조건을 상징한다. 둘째로 허무, 불모 그리고 무미 건조한 상징을 통해 표현하려는 사회의 무용성이 있다. "Gerontion"에서 "Tenants of the house, / Thoughts of a dry brain in a dry season."의 표현처럼 세상사람들이 세든 존재인 것처럼 무미건조한 생각과 분위기에 휩싸여 일시적인 거주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가치없는 사회의 면모를 일축한다. 셋째로 질병과 오염의 상징으로 표현하려는 사회의 불결성이 있다.

14) SP, p. 103. The whole of Shakespeare's work is one poem . . . .



*The Waste Land* 에서 one-eyed merchant, 유령과 같은 존재, 단것만을 즐겨 먹는 결과로 썩은 이빨 그리고 unreal city등과 같은 질병과 오염의 상징은 인간의 의식을 잠식하는 사회의 불결한 면모를 입증한다.

사회악의 근원을 요약하자면 인간을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사회현상, 삶을 권태로 유인하는 가치없는 사회현상 그리고 질병과 오염에 물들게 하는 불결한 사회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적인 법률이나 처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Eliot는 죽음의 모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liot시에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사막, 가뭄 그리고 어둠의 이미지는 재생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죽음, 갈증 그리고 암흑속에서 생명, 물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그는 사회에 길들여져 무감각하게 마비된 현대인의 무감각, 무기력 그리고 무책임한 의식구조를 되살리기 위하여 부정적이고 역설적인 논리 (The Negative Way), 즉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부정적인 논리(Negative Way)란 용어는 철학적 관념을 능가하기 때문에 Hegel의 정반합의 변증법(the negative of the negative)과는 다른 모순어법(oxymoron)(Hay 1)이다. Eliot는 기독교의 Via Negativa를 시와 드라마의 모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통로(Void Path)의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중세의 기독교 사상인 Via Negativa는 생각하는 주체에 대한 개념과는 대립되어 사회의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그의 최선의 방책이다.

The via negativa, with its denial of human reason as well as human sensation, is perhaps the ultimate ritual for transcending this evil world, dying to the world before actual death; one of its most complete formulations comes in the somewhat opaque fourteenth century Cloud of Unknowing, which Eliot quotes in "Little Gidding."(Libby 25)

Via Negativa는 이성과 감성을 부정하여 실제적인 죽음 이전에 죽어가고 있는

악한 세계를 초월하려는 궁극적인 의식이다. 그가 중세 기독교의 Via Negativa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물론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미국의 문화적 풍토의 불모성으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된 F. H. Bradley, Heraclitus, 그리고 Heidegger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F. H. Bradley의 직접 경험(immediate experience)은 개인의 주관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의식 이전의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은 의식하는 순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경험으로서 주체와 객체가 무시간속에 통합된 것이다. Eliot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직접 경험을 암흑의 밤으로 표현하면서 주체와 객체가 통합되는 일원론적 시각을 제기한다. : Through neither subject nor object nor any of their usual qualities can be distinguished in the dark night of immediate experience, they are all there, in an inextricable confusion of "many in one."<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직접경험의 진리는 단지 부정적인 논리에 의해서만이 경험하거나 인식될 수 있다. *Four Quartet*에 있어서 제 2의 제사로 사용한 Heraclitus사상 - The way down and up is the same - 과 Heidegger의 무속의 유(Being in Nothing)는 Bradley의 직접 경험을 가능케 해줄 인식의 전환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 Heidegger에게 존재(Dasein)란 현상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동시에 그 어떤것 보다 인간에게 밀착되어 있다. (Being is father away than all that is, and nevertheless is nearer to man than any thing, whether it be a rock, an animal, a work of art, a machine, an angel, or God)(Heidegger 355). Heidegger처럼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유전한다는 입장에서 인위적인 단절을 가할 수 없는 존재양상에 대한 묵시적인 결합을 함축한다.

Describing the "dread" or "anxiety" occasioned by the "withdrawal of Being" felt at various periods of history, including our own, he noted that the phenomenon of anxiety in the face of Nothingness had first become a central concern

15) T. S. Elio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 H. Bradley* (London : Faber & Faber, 1964), p. 21.

among Christian theologians, especially St. Augustine, Luther, Pascal, and Kierkegaard. Both Eliot and Heidegger began their major work listening to what Heidegger called "the soundless voice which attunes us to the horrors of the obeys [ of Nothing ]."(Hay 4)

Bradley, Heraclitus 그리고 Heidegger이외에도 St. Augustine, Luther, Pascal 그리고 Kierkegaard등의 여러 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운 Eliot의 부정적인 논리(Negative Way)는 자아에 대한 재해석으로서 cogito의 부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Miller 132). 이러한 부정은 현세의 포기로서 새로운 긍정, 즉 천륜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Eliot의 부정적 논리는 다양한 현상 이면에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Gerontion" 이전의 시들은 존재에 대한 인위적인 단절, 소외, 그리고 파편적인 절망으로 점철된다. 이러한 표현은 사회가 진보적인 인간정신의 표출이란 점을 감안할 때 진보적인 인간정신에 대한 반성이다. 데카르트 이래로 인간의 이성은 진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하고 Darwin에 이르러 인간은 동물로 전락되어 하나의 실험도구 또는 소모품의 가치절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세운 인위적인 존재의 단절인 대표적인 실예는 수학을 바탕으로 한 계약적 체계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는 전문화, 다변화 그리고 개별적으로 분리되었다. 계약(man-centeredness)은 천륜(nothingness)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인간 행위로서 현대 상업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것이 현대의 병적 증후군의 핵심이다. 현대의 병적증후군은 상업주의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의 단절, 시간의 편견과 무지, 가정의 와해, 그로인한 소외와 정신적 황폐등으로 톱니바퀴처럼 상업주의와 맞물려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이다.

Dorris : Is that Sam?

Dusty : of course it's Sam!

Dorris : the Knave of Hearts is Sam!

Dusty : ( leaning our of the window ) Hello Sam!

Wauchope : Hello dear

How many' s up there?

Dusty : Nobody' s up here

How many' s down there?

Wauchope : Four of us here.

Wait till I put the car round the corner

We' ll be right up

Dorris : I' d like to know about the coffin.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Fragment of a Prologue”, CPP 118)

문화의 뿌리를 상실한 미국인 Sam은 미국인을 대변하는 Uncle Sam으로서 “Knave of Hearts”의 전형적 인물이다. 그는 내용보다는 숫자놀이(짜릿기)형식을 앞세우며, 실재보다는 현상만을, 경험보다는 지식만을 앞세우는 극단주의자이다. Sam의 행위는 천륜을 저버린 채, 인간중심의 계약만을 중시하는 일시적이며 일회적인 동시에 인위적이다. 이때 Dorris는 인간의 계약과는 상반되는 신의 섭리인 천륜을 의미하는 듯 죽음의 상징인 coffin을 연상하며 죽음의 소리(knock)를 느낀다.

이러한 수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일시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상업주의라는 천륜에 대한 인식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Eliot는 종교뿐만 아니라 희랍신화를 시에 도입하는 동시에 현대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추구했다. 단편적인 인유(allusion)를 통해 표현하는 Eliot의 기법은 마치 의미없는 수많은 기호의 조립을 통해 의미를 부각시키는 언어의 문법성처럼 단편적인 요소들을 결합시켜 공통적이며 항구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그것은 특히 Heraclitus의 Logos개념처럼 항상 그대로 인간의 행위와 질서 사이에 제 아무리

분리된다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소를 종교와 문학이 합치된 신화속에서 모색했다.

*The Waste Land*의 전체 흐름은 J. Weston의 *From Ritual to Romance*와 J. Frazer의 *The Golden Bough*에 들어있는 신화를 토대로 삼고 있다. Davi Bidney는 신화란 인간정신능력과 연루된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라고 정의했으며 Allen Walts는 신화를 인간의 감추어진 삶의 의미를 포괄한 복합체라고 정의한다. (Righter 13) 따라서 Eliot가 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sup>16)</sup>로서의 신화는 오염된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종교적인 동시에 문학적인 만병통치약으로서 산술적인 계약체계라기보다는 천륜을 바탕으로 한 항존하는 보편적 체계이다.

*The Waste Land*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신화적 의미는 생산력을 상실한 사회의 불모성과 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성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시의 기본 골격은 대위법(counterpoint)으로서 제시되지만 풍요의식과 성배전설에 대한 언급 가운데 Weston에 의한 Fisher King, 죽음과 재생의 암시, Adonis의 우상을 파도에 맡기고 다시 즐거워하는 풍요의식, 그리고 성체의 분산을 암시하는 Phoenicia의 수부이다. 이 시는 살인과 강간같은 욕망에 대한 개인적 죄의식으로 만들어지는 지옥에 초점을 둔다. 'the Burial of the Dead'는 Tarot카드, 재생의 이미지, 매장된 시체, 히아신스 꽃 등을 통해 개인적 공포, 불모와 죄의식을 묘사한다. 'what the Thunder Said' 역시 좌절, 죽음, 불모와 분노로 가득차있다. 우리의 경고는 땅의 재생이라기 보다는 자아로부터의 탈피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Gish 48-57). 이 시에서 주로 사용된 신화적 존재인 Sibyl, Madame Sosostris, 그리고 Tiresias들은 불모로부터의 변화, 재생 그리고 구원으로의 의미를 표명하는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다. 비록 이 시의 구성이 복잡하고 단편적일 지라도 그것은 불모와 구원의 대위법으로서 가능성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는 Eliot의 노력의 흔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Eliot에게 사회구원은 인간 의식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설정한 방식은 죄의식의 자각, 절망, 자아희생, 그

16) T. S. Eliot, SE p. 145. 참조. The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in the form of art is by finding an "objective correlative" . . . .

리고 자비와 존경을 포괄하는 사랑의 단계로 이어지는 자기부정이다. 이것이 Eliot가 죽음을 통해 무기력, 무책임, 무의미한 현대의 삶을 생동감있으며 희망에 찬 삶으로 전환시키는 부정적 논리(negative way)이다. E. K. Hay는 이러한 과정을 세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three stages of the soul's journey to union (in this life) with God, described just before this passage by St. Gregory, were borrowed from Plotinus by the earliest Christian writers. They were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 . . For very good reasons, though, Eliot reverses the first and second of these stages in the negative way of the poet, as conveyed in Four Quartets. (Hay 159-160)

Eliot의 부정적 논리의 과정은 계시(illumination), 정화(purification) 그리고 신과의 합일(union)의 순서로서 우주의 역사속에 펼쳐진 내밀한 질서를 반영하는 원형(pattern)이다. 이것은 우주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구심점(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으로서 인간과 단절될 수 없는 자연의 원리이며 신의 섭리이다. 따라서 인간이 빛나간 자아의 행로에 대한 죄의식, 정화를 위한 자기 부정과 희생, 그리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사랑을 통해 자연의 원리와 신의 섭리에 동참할 때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

Eliot 자신이 지식과 기술을 통해 불행한 인간 조건을 행복한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반박하며 끌어들이는 부정의 논리 가운데 중심적인 요소는 희생적 논리이다. 우주의 질서는 희생의 논리에 의해서 순환되며 질서를 유지한다. Eliot의 걸작, *Four Quartets* 는 우주의 4원소(불, 물, 흙 그리고 공기), 자연의 4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인생의 4단계(탄생, 성장, 노화 그리고 죽음)와 같은 자연의 원리와 신의 섭리를 희생의 논리에 입각하여 전개된다.

Descend lower, descend only  
Into the world of perpetual solitude,

World not world, but that which is not world,  
 Internal darkness, deprivation  
 And destitution of all property,  
 Desiccation of the world of sense,  
 Evacuation of the world of fancy,  
 Inoperancy of the world of spirit:  
 This is the one way, and the other  
 Is the same, not in movement

(“Burnt Norton, ■”, CPP 174)

Sin is Behovely, but  
 All shall be well, and  
 All manner of thing shall be well!

(“Little Gidding, ■”, CPP 195)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연적인 요소는 죄의식과 희생의 논리이다. 하나의 길 (the one way)로 이어지는 것은 편견과 무지로 가득찬 감각의 세계와 공상의 세계를 희생시키는 정점의 영원한 고독과 암흑으로의 지향이다. 이러한 희생의 논리는 인간의 한계적인 시간성을 초월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정점의 영원한 고독과 암흑에 도달될 때 새로운 탄생, 즉 감각적인 죽음을 통한 기독교의 중생 그리고 불교의 해탈과 같은 정신적인 제 2의 탄생을 의미한다.

감각적인 죽음과 정신적인 탄생이 한 점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구원 즉 부활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순간으로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통합되는 현재이다. 과거와 미래가 통합되는 영원한 현재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고정된 순간이 아닌 춤과 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At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 Neither flesh nor  
 fleshless;  
 Neither from nor toward: at the still point, there the dance  
 is,

But neither arrest nor movement. And do not call it fixity  
Where past and future are gathered . . . .  
("Burnt Norton", ■ CPP 173)

영원한 현재(the still point)는 시간속에서 시간이 정복되는 시간으로서 미래로의 초월적인 성격과 과거로의 내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다. 따라서 무시간(Timelessness)으로서의 영원한 현재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에 오가는 정신적 교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fixity)이 될 수 없는 상하의 흐름이며 좌우의 흐름이다.

The way up is the way down, the way forward is the way  
back. ("Dry Salvage, ■", CPP 187)

상하의 흐름을 신과 인간의 관계로, 좌우의 흐름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볼 때, 상하, 좌우의 교차점은 현대의 권태와 무의미, 그리고 대화의 단절과 감수성의 분열을 치유하는 구원으로서의 길로서 "죄의식의 자각"과 "죽음과 삶의 경계"의 중심 모티브를 동시에 포괄하는 지점이다. 죄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끈으로서 사랑의 원동력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삶의 종말이 아닌 신과 인간의 교류를 가능케하는 또다른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따라서 인간은 죄의식의 자각을 통해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 유한적 시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연의 원리와 동참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신적 흐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形)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단절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구원의 가능성과 현실의 고통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구원의 약속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의미함으로 죽음속에 담긴 시간적인 시작과 끝, 그리고 공간적인 개체와 전체의 통합, 다시말해서 현재와 현실(Now and Here)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What we call the beginning is often the end



And to make an end is to make a beginning.  
 -----

The moment of the rose and the moment of the yew-tree  
 Are of equal duration. A people without history  
 is not redeemed from time, for history is a pattern  
 of timeless moments . . . .

With the drawing of this Love and the voice of this Calling  
 -----

Quick now, here, now, always —  
 A condition of complete simplicity  
 ( Costing not less than everything)  
 And all shall be well and  
 All manner of thing shall be well  
 When the tongues of flame are in-folded  
 Into the crowned knot of fire  
 And the fire and the rose are one.

(“Little Gidding, V”, CPP 197-8)

시작과 끝은 스쳐지나가는 현재에 결합되어 있으며 생성하고 변화하는 장미와 주목(Yew-tree)은 현재에 충실하기에 동등하나 역사의 흐름에 벗어나는 인간(A people without history)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역사란 인위적으로 단절된 과거 또는 현재가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현재(a pattern of timeless moments)이다. 역사에 동참하는 인간은 사랑의 이끌림과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장소(Quick now, here, now)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의미를 통해 인간중심, 특히 개인 중심에 대한 삶을 회개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곳이며 때이다. 이러한 진리(A condition of complete simplicity)를 깨닫게 되면 생성하고 변화하는 개체의 장미가 영원을 의미하는 불과 하나로 결합되어 개체는 영원을 통해 구원된다.

생성하는 장미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며 타오르는 불은 신과 인간사이의 신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적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Eliot의 성육신 개념이며 십자가의 상징이다. 이것은 지상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현실(Now and Here)에서만 가능하다.

The new pattern is the form God gives to history. The presence of God in history, of the timeless in time, is the Incarnation. The Incarnation occurred at a particular moment in time, and yet is constantly recurring at every moment as that which creates time by creating the design of time. The incarnation was "a moment not out of time, but in time, in what we call history". (Miller 188)

시간속에서 시간을 정복하는 것은 부정의 논리인 계시, 정화 그리고 신과의 합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영원으로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영원은 신이 역사속에 부여해 준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생의 논리를 통한 구원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Eliot의 구원은 죄의식과 절망, 자아희생 그리고 사랑으로의 경험적 과정을 통해 자연의 원리와 신의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개인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으로의 새로운 자아의 탄생은 개인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개체의 구원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Eliot의 문학과 종교는 인도교의 중간단계, 불교의 중용 그리고 기독교의 성육신이라는 종교적 경향을 혼합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인간 및 사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모티브, 죄의 모티브 그리고 구원의 모티브를 전개하였다. Eliot의 문학은 결코 종교와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분야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상의 교리적 허구를 통제하고 예정론과 왕권신수설과 같이 빛나간 교리를 교정하는 동시에 자연의 원리를 신성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현실적인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Eliot의 문학과 종교가 취급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 죄 그리고 구원의 모티브는 허구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종교적 체험이다.

현대 도시문명과 자본주의속에서 Eliot가 진단한 현대 질병의 증후군은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 중심으로 맺은 계약, 즉 수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상업주의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교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주의로 물든 교회가 "Hippopotamus"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Eliot가 제시한 치료방법은 삶속의 삶이 아닌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인 부정적 논리이다. 인간중심의 계약은 삶속의 삶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는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반면 부정적 논리는 죽음을 통해 삶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신과 인간사이에 맺어진 천륜을 바탕으로 한다.

현대의 병적 증후군에 사로잡힌 사회전반의 미비현상인 무감각, 무책임 그리고 무기력한 사회의 악은 인도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에 의하여 각각 해소될 수 있다. 먼저 인도교는 개인보다는 사회책임 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책임을 해소하고 불교는 개인의 내적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기력을 해소하며 기독교는 죄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감각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미비현상을 치료한다. 이러한 치료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식의 자각이다. 죄의식의 자각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헌신적인 희생(self-sacrifice)과 사랑을 동반하는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신과의 단절된 삶은 비록 단지 의미없는 몸짓(gesture without motion, CPP 83)에 불과하여 순간적인 쾌락은 있으나 만족이 없는 공허한 삶이며 상호간의 적대관계로 투쟁하는 전쟁과 같은 경쟁의 삶이다. 이러한 욕망의 삶을 변화하기 위하여 Eliot는 부정적 논리인 계시(illumination), 정화(purgation) 그리고 신과의 합일(union with the God)의 과정을 통해 인간과 신 사이에 드리워진 그림자(shadow)를 인식하고 죄의식을 통해 자아희생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조건에 입각한 인간적 사랑이 무의미한 일련의 몸짓에 불과하다면 무조건적인 천륜에 입각한 사랑은 자연의 법칙과 신의 섭리에 동참하는 율동이다.

Neither ascent nor decline. Except for the point, the still  
 point,  
 There would be no dance, and there is only the dance.  
 I can only say, there we have been: but I cannot say where.  
 And I cannot say, how long, for that is to place it in time.  
 The inner freedom from the practical desire,  
 The release from action and suffering, release from the inner  
 And the outer compulsion, yet surrounded  
 By a grace of sense, a white light still and moving, . . . .  
 ("Burnt Norton, II", CPP 173)

'the still point'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形)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는 서로를 형제로 묶어주는 끈(Human bond)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은 신과의 합일을 맺을 수 있는 동시에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동인이다. 따라서 인간의 죄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외, 내부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륜(a grace of sence)에 의해 지배받는 길이다.

종교의 특성이 초월적, 절대적 그리고 관념적이라면 문학의 특성은 현실적, 경험적 그리고 구체적이다. Eliot는 허구적인 구원의 논리를 배격하고 이러한 종교와 문학의 양면적 특성을 토대로 인간의 죄, 자아희생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일치로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보편적 형식을 마련한다. 인도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성과 몰개성 이론, 감수성의 통합 그리고 신화와 같은 객관적 상관물의 문학 이론은 현재(Here and Now)와 죽음을 결합시킴으로써 분리되기 쉬운 경험과 지식, 감성과 이성, 현실과 이상,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총체적인 인간경험으로 통합시킨다. 따라서 Eliot의 문학과 종교는 사회질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Eliot felt keenly the value of the rare moments of "easy

and natural" association between literature, religion, and society (though he noted that "many of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s of culture" has been made in condition of disunity)and he spoke with eloquence of their combination of underlying order and deliberate if controlled cultivation of differences in point of view. (Moody 77)

20세기는 그 어느 철학보다도 맑시즘과 실존주의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그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나마 Eliot의 시가 그러한 인간중심의 철학적 배경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색해 왔다. 그의 시는 현대의 추함과 악함과 타협하여 종교성을 바탕으로 마비된 사회에 질서의식을 던져준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는 문학과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게 함으로써 현대 문명사회의 무감각, 무기력 그리고 무책임한 인위적 삶을 생동감 넘치는 유기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위적인 삶은 조상과 역사적 전통을 사장시키고 홀로선 사생아와 같은 도시의 삶인 반면에 유기적인 삶은 전통과 역사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 그리고 신의 섭리에 순응하여 세대와 세대간의 단절이 없는 연속적인 삶인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보편적 삶이다. 따라서 Eliot의 문학과 종교는 사회에 뒤덮인 혼탁한 의식구조를 다시금 바로잡아 본연의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으로서 고통과 시련을 경험케하는 지적 여과작용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영혼을 통해 정신적 질병을 극복케하는 상호유기적 기능을 담당한다.

## 참고문헌

- Crawford, Robert. 1987. *The Savage and The City in the Work of T. S. Eliot*, Oxford, Clarendon Press.
- Dowson, Christopher. 1931. *Essays in Order*, New York.
- Eliot, T. S. 1934. *After Strange Gods*, London, Faber and Faber.
- . 1976. *On Poetry and Poet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 . 1951.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 . 1953. *Selected Prose*, ed. John Hayward, Harmondworth, Penguin books.
- . 1969.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 Forster, E. M. 1951. *Two Cheers for Democracy*, New York.
- Gish, Nancy K. 1981. *Time in the Poetry of T. S. Eliot : A Study in Structure and Theme*, New Jersey, Barnes & Noble Books.
- Hay, Eloise Knapp. 1982. *T. S. Eliot's Negative Way*,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 Heidegger, Martin. 1949. *Existence and Being*, Chicago, Regnery.
- Kearns, Cleo McNelly. 1987. *T. S. Eliot and Indic Traditions : A Study in Poetry and Belief*,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im, Young-Ho, 1987. *Whitman and Han Yong-Un*, Seoul, Soong Sil Univ. Press.
- Libby, A. 1984. *Mythologies of Nothing*,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 McDiarmid, Lucy. 1984. *Saving Civi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Miller, J. Hillis. 1965. *Poets of Realit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 Moody A. David. ed. 1994. *The Cambridge Companion to T. S. Elio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ighter, W. 1975. *Myth and Literature*, New York, Rontledge &  
Kegan  
Paul.
- Tamplin, Ronald. 1988. *A Preface to T. S. Eliot*, London, Longman.
- Weatherby, Harold L. 1975. *The Keen Delight : The Christian Poet in  
the Modern World*, Athens, The Univ. of Georgia Press.

- 강영선의 53명, 1963, 철학대사전, 서울, 학원사
- 구상의 11명, 1991, 종교와 문학 : 한국종교학회편, 서울, 소나무
- 김영호, 1992, 영미기독교시 개관, 서울, 송실대출판부
- 김영호의 7인, 1995, 문학과 종교의 만남, 서울, 동인
- 김태진 의 3명, 1992, 미국문학과 동양, 서울, 한신문화사

## Abstract

### T.S.Eliot's Literature and Religion

kim, yung-ho • Park, Jungwhan

As a poet, a critic and a philosopher, T. S. Eliot(1888-1965) uses his literature and religion in order to overcome the skepticism of the present perceived on account of the disintegration between man and society. The literature and the religion for him have the interrelated function to avoid individual and social problems and to lead them into salvation. Because he found the industrialism and commercialism as the cause of the disease of the modern society to destroy or dissolve the community such as the family, the group and the society, he uses the religion such as Hindu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to pursue ultimate goal of salvation of man and society.

This thesis is, therefore, to find the way of the social salvation by healing the modern ailment through the religion and the literature. Eliot's religions are the ways to cure the plights of the modern society - the hopelessness, irresponsibility and insensibility - through the industrialism and commercialism. Like his religions, his literature is also the way to do so through the concept of tradition and the historical sense, and through the theory of impersonality and the unified sensibility. He suggests, in other words, the meaningless society can be transformed into the meaningful society. At first, the indian thoughts like Hinduism and Buddhism is the way of the social salvation, as they can cure the irresponsibility and hopelessness, the symptom of modern disease, by making modern men realize their duty and identity in the community through Karma, Nothingness and Samsara. Besides the



indian thoughts, Christianity is more important to Eliot, as it emphasizes man's original sin and love. Unlike the indian thoughts focusing man's ignorance, It wakes up the paralyzed senses of man and society by making the modern men feel guilty consciousness.

Ultimately Christianity makes man realize the communal beings, not the individual beings. Finally, by suggesting the way of 'illumination', 'purgation' and 'union with God' through his religions, Eliot constructs the way of social salvation which transforms the meaningless into the meaningful as the main theme in his literature.